

## 청풍헌(淸風軒)

### Cheong Pung 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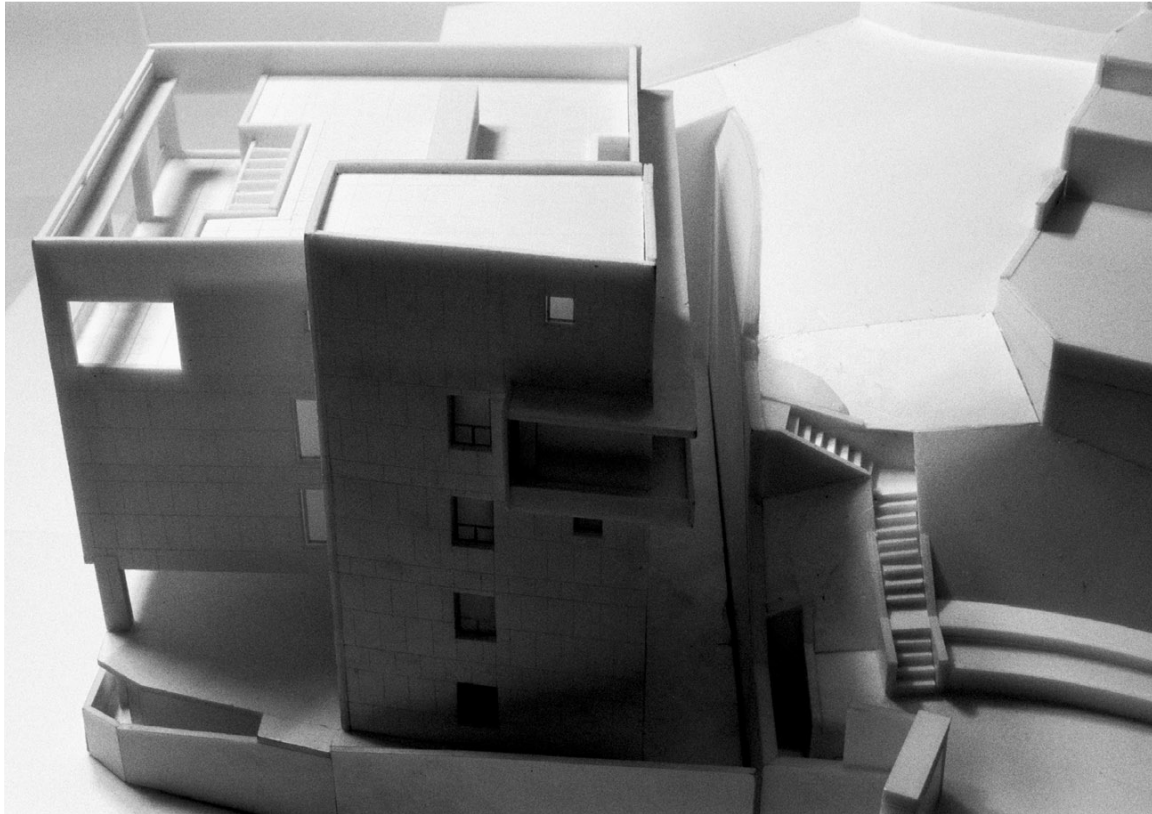
#### 건축의 존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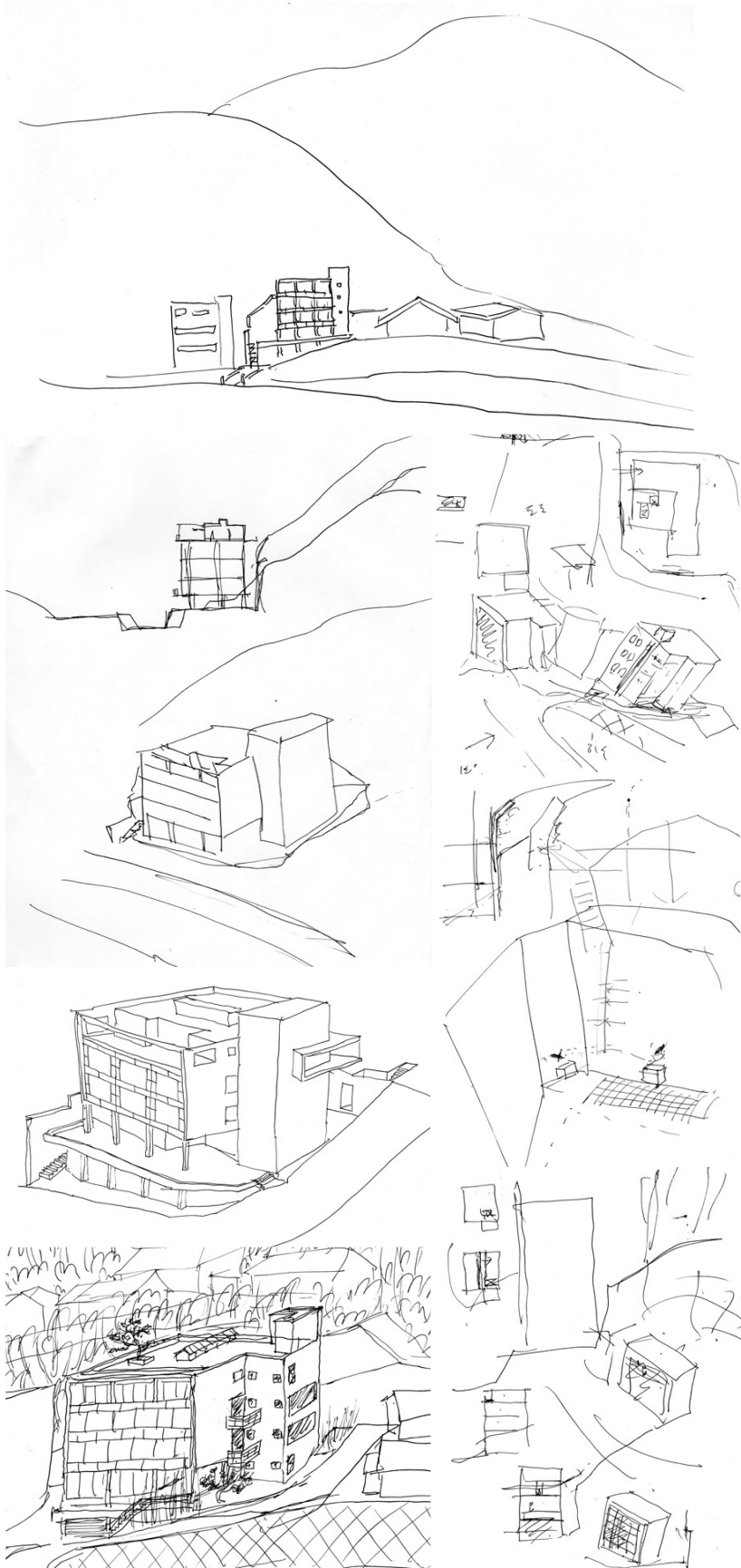
인간의 존재 양상은 문명과 자연에 대한 인식과 삶의 태도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기술의 활용은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켜 왔다. 그러한 삶의 환경적 요인들로부터 파생된 대중적 기호와 보편화 된 인식에 의해 각 시대의 문화기류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한 사회 환경은 마치 자연환경처럼 유기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특정 분야

의 양상까지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된다.

현재에도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요인들이 형성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이전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던 사회 콘텐츠가 무력화되고 새롭게 등장한 도구를 이용한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래서 이전의 기술이 쓸모없게 되고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어지는 변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문명은 편리함으로 인식되지만 실상은 그 편

리함보다 그 의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구속적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중국에는 인간이 도구에 지배당하는 결과가 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사로 잡혀 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도구의 쓰임이 보편화되면 그것은 사회 공통의 이기로서 사회에 적용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새로운 기술에 의존할 수 밖





에 없게 된다. 정보화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 사람들은 보다 빠른 정보의 취급이 승패를 가름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에 눈에 뜨이게 하려는 이미지 생산의 홍수 속에 대중에게 어필하려면 독특하게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디자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혈안이 된다.

모든 창작물은 작가의 인식여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건축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변화추세에 맞춰 그때 그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늘 새로움이란 의미를 추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에서 특별한 개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그래서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하듯 취급되기 쉽다. 하지만 건축의 본질에 비춰볼 때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정당할지 의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시대에 알맞도록 개조하려 하지만 필자는 건축의 덕목이 변화할 수 없는 의미에 있다고 생각한다. 기능주의는 인간의 존재성을 일깨워 주고 여기 건축을 그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건축의 본질은 인간의 원초적 존재성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기능주의와의 생각의 차이는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건축의 본질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성에 부합시키는 일과 다르며 문화적 변화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덤덤한 건축을 지향하고자 한다. 건축은 도시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지만 도시의 허부 구조가 아닌 문명의 범람속에 존재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의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시성에 밀접히 연관된 결과로 인한 편리함보다 원초성으로 인간성 회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터는 존재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건물이 세워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터는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찾아 갈 장소가 된다. 전통 건축에서는 건물을 세운 후에도 터의 채취를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건축 행위에 의해 터의 존재가 사라지고 있다. 그것은 자연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건축을 하면서 개발 의식에 사로잡히기 쉽다. 특히 경사지를 깎아 지을 경우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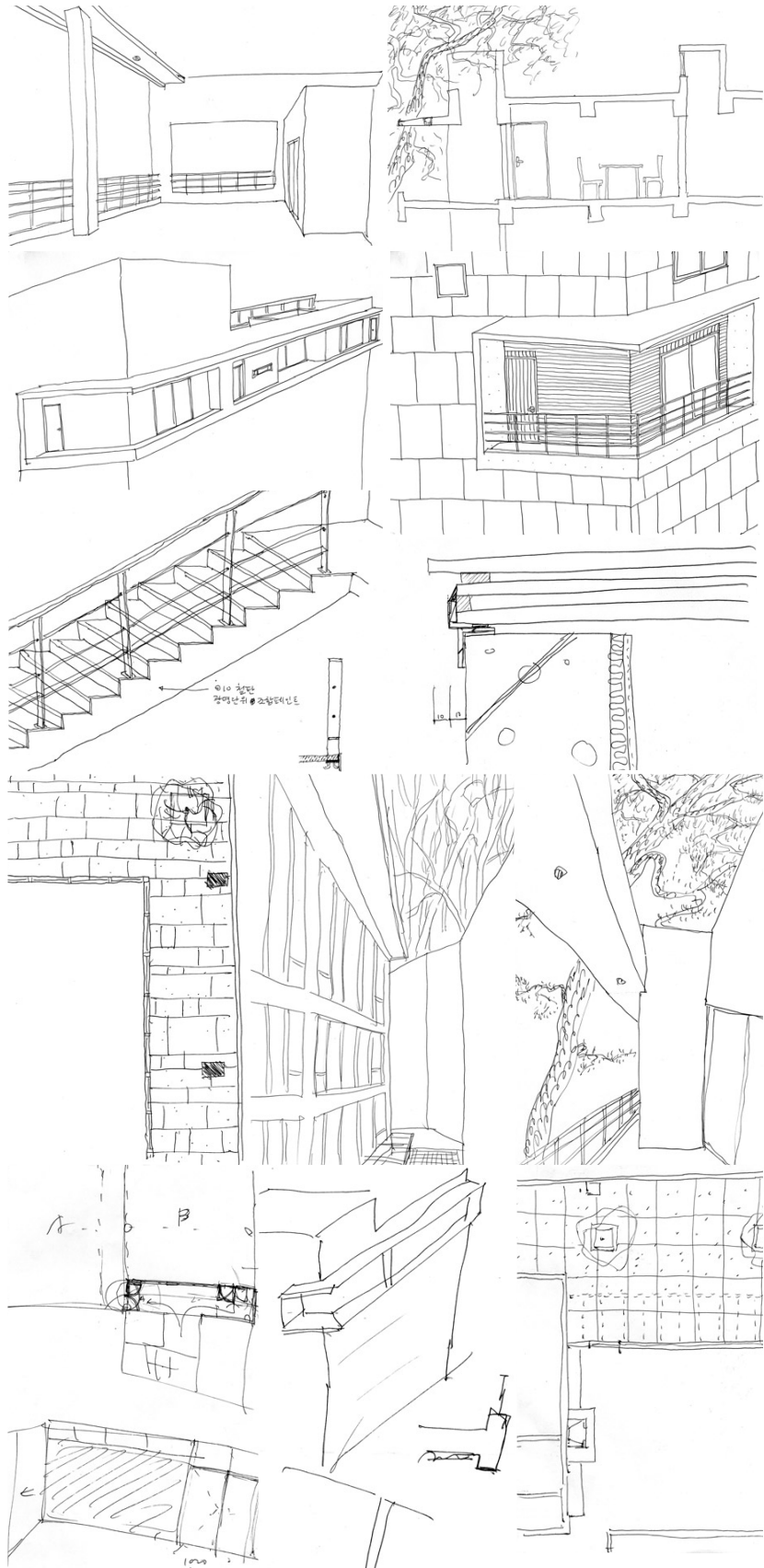
욱 그렇다. 현장을 오가는 길옆 경사지에 짓는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착암기로 임반을 도려낸 후 건물들을 짓는다. 다 도려내고는 열악한 터에 집을 짓게 된다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 결과 그 터가 지니던 감각은 자취조차 없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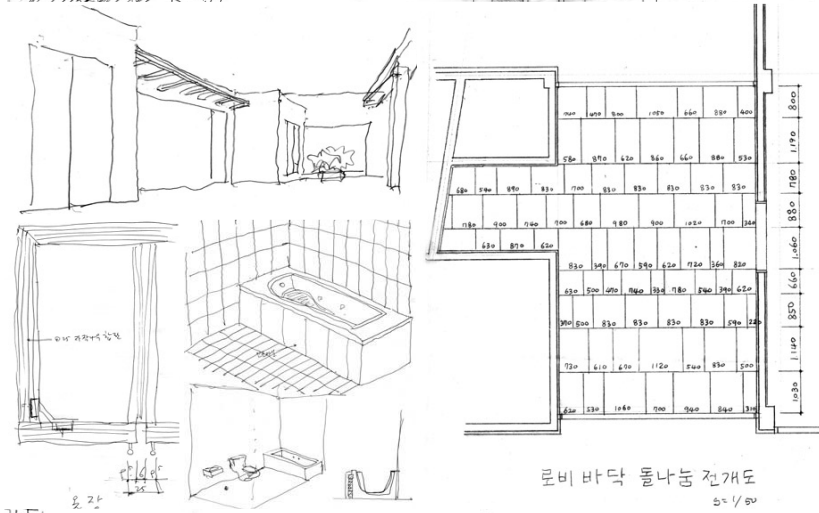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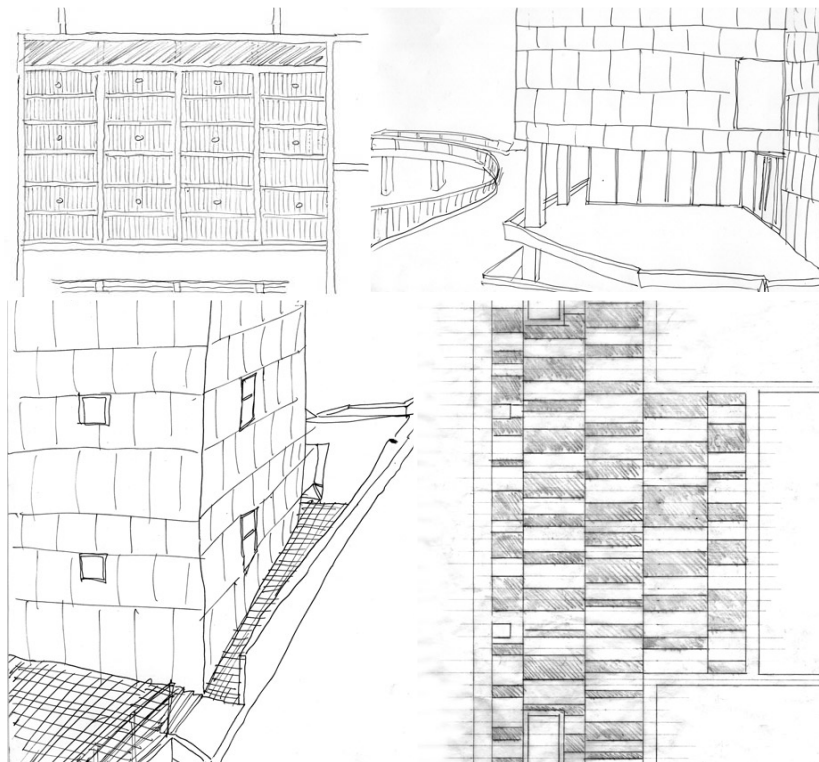
건축은 우주위에 새로이 등장하는 돌발된 사물로서 건축사의 작업은 그것이 다시 우주와 평형을 이루며 삶의 기반이 되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기능을 수용하는 조건하에 공기의 순환, 채광, 조망 등 자연과의 기본적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터의 고유성을 살피며 자연 및 도시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건축의 감각은 구축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물의 질서 그 자체로써 표출되는 감각에 관해 바른 모습을 지니는 일이며, 건축 설계는 그 모든 의미들을 충족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구상과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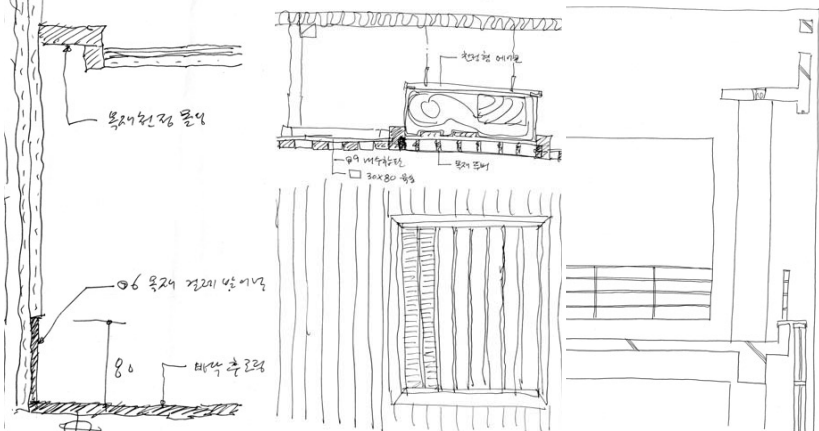
이 대지는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고 있다. 자연 지형의 북사면 경사지로서 건물이 앞뒤 표고차가 매우 크다. 그리고 북한산 지락이 펼쳐 보이는 조망 요소와 뒷산의 녹지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있다. 하지만 북사면이어서 일조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조망은 북쪽 시선이 좋지만 따뜻한 태양은 남쪽에 있다. 이 건물의 설계 개념은 그러한 자연 지형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여 각각의 공간 잇점을 갖게 하려고 했다.

인근 평창동은 서울에서 북한산의 산세를 느끼며 살 수 있는 드문 입지로서 선망되는 주거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평창동이라는 지역적 인상만을 인식할 뿐 산세의 흐름으로써 보기는 쉽지 않다. 계획 대지도 북한산 전체로 볼 때는 그 산세의 연속이다. 건물로 가득해진 오늘날 인왕산 주변마저 북한산의 체취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산세의 흐름은 여전히 살아 있다. 전에는 그 곳을 가끔 오가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으나 자주 오가는 사이 북한산 산세 가운데서 대지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대지 앞에는 개울물이 흐른다. 지금은 강 양쪽이 도로와 축대 등 인공 구조물로 이루어져 자연의 모습을 잃고 말았지만 소나기가 온 후 한번쯤 시원스레 큰 물길이 휩쓸고 난 후 가라앉아





투비바닥 돌나눔 전개도  
2/1/00



몇 일간 맑게 흐르는 그 개울물만큼은 그 옛날 집들이 들어서지 않았을 때 흐르던 계류의 체취를 간직해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할 때 터가 갖고 있는 본래의 감각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이 건물의 구상은 터의 존재성을 간직하게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하 1층의 외부공간을 둔것은 원래지반이 존속되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건축행위에 의한 터의 상실이 아닌 그 힘을 느끼며 생활하게 하고자 했다. 이 대지에는 기존 건물이 있었다.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고 층도 낮았다. 건물 주인은 살고 있던 그 건물과는 전혀 다른 조건의 건물을 새로이 짓고자 했다. 규모가 커지고 층수도 몇 배 높아지는 조건이다.

이 구상은 프로그램에 따른 층별 공간의 성격과 대지가 갖는 자연지형 및 도시 여건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간의 배열과 동선이 고려되어 있다. 우선 외부로부터 동선의 흐름은 다리건너에서 곧바로 오를 수 있는 계단과 전면 경사 도로를 따라 우측 계단으로 접근하는 두 갈래의 순환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당도된 로비에서는 수직 동선 및 뒷마당으로 향하는 외부 공간과 연계되어 있다. 그 흐름은 멀리 뒷산의 산책길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계단과 길에 의해 각각의 판과 판을 연결시킨다. 기둥은 각 층의 판을 들어올려 새로운 위치에 인공 지반을 형성한다. 그 각각의 층이 원래의 지반과 다른 조건에서 내부로부터 외부로 향해 개방감을 갖게 하고자 후면에 채광 공간을 두었다. 그리고 전면에서는 수용하는 시설의 총체가 표정으로 인식되게 했다.

3층 주택은 들어 올려진 지반위에 앞뒤로 테라스를 갖고 있다. 그 곳은 시선이 높아진 지반이 되어 원래의 지반에서보다 전망을 훨씬 좋게 한다. 테라스를 거닐며 더 멀리 개방된 시선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그에 면하도록 큰 거실창을 설치하고 천창을 두어 채광과 조망이 동시에 충족되도록 했다. 그리고 주택 평면 구성은 각각의 실이 독립성을 갖으면서 주변과의 관계에 의해 그만의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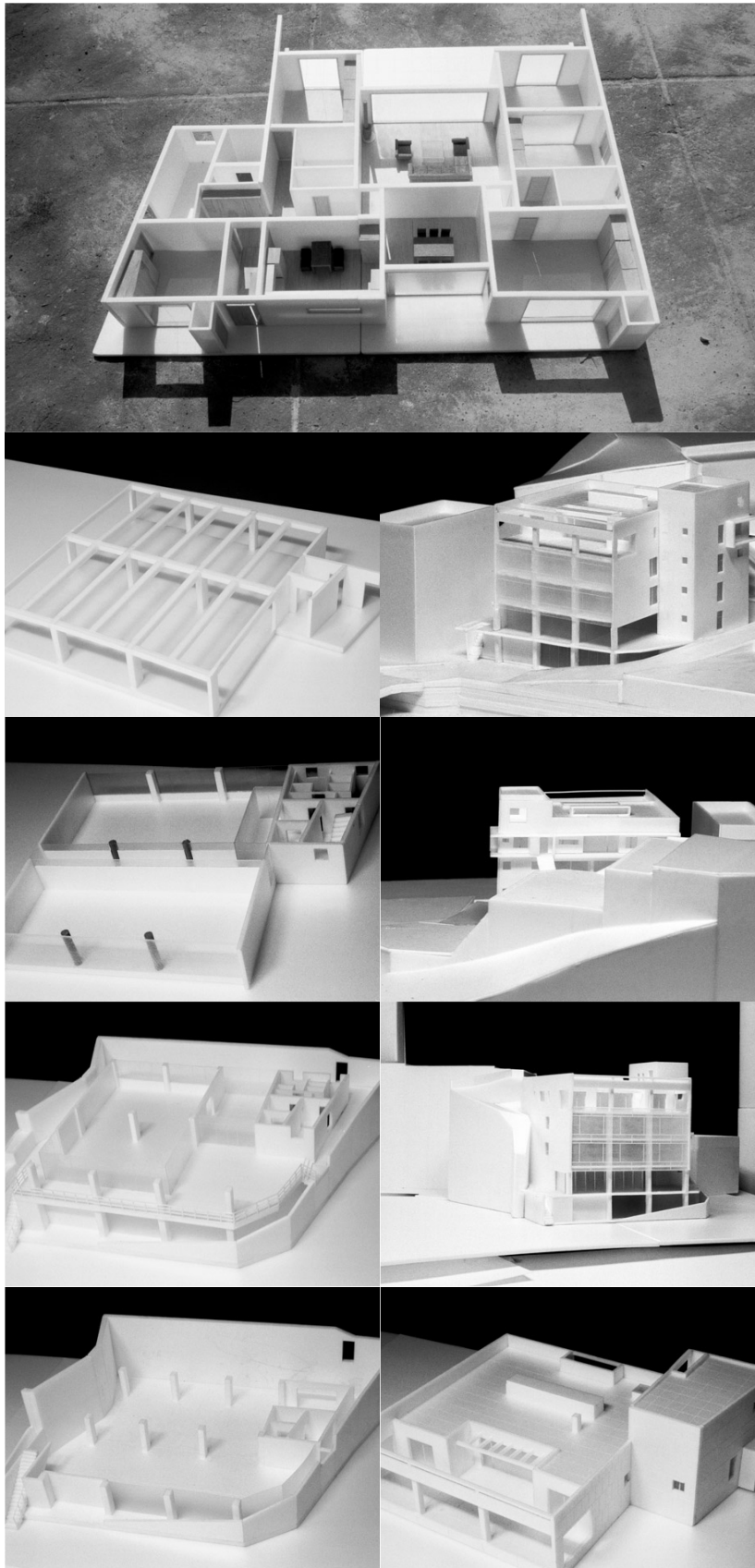
외부로 드러나는 건물 이미지는 형태를 만든다는 생각보다 규모 조건에 의해 생성된 구조체가 솔직하게 표출되는데 따른 건축적 질서로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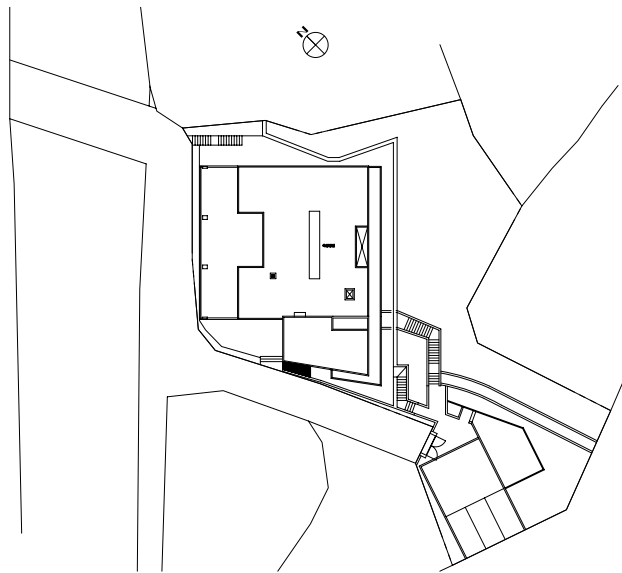
강한 건축적 감각을 지니게 했다. 그 바탕에서 보이드 부분의 프레임이 강조되기도 하고 짙 채워진 표면에 쓰인 재료에 의해 물질적 감각이 표출되기도 한다. 이 건물에 쓰인 재료는 천연의 물성을 발하도록 했다. 그것은 우주를 형성하는 근원적 존재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또한 고대로부터 인류가 주변에서 획득 가능한 천연 재료를 써서 축조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건물을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 사물을 대할 때와 같이 사물의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축조 자체가 진솔히 드러나는 노출콘크리트는 정직하고 견실함이 느껴지게 될 것이다. 천정은 메탈라스위에 천정 안이 투시되는 재료 속성에 의해 개방된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외벽에 사용된 화강석 판재는 손으로 잔다듬 한 것을 사용하여 물성과 구성미가 느껴질 뿐 아니라 크기에 변화와 각각의 켜가 어긋나게 하여 자연스런 느낌이 들게 했으며 외부 바닥은 화강석 물성이 강하게 풍기도록 거친 흑두기 마감으로 했다. 그리고 전후 벽면은 개방된 창으로 하여 투명한 느낌이 들게 했다. 유리로 된 그 창 부분은 다른 측면의 질박한 석재 마감면과 대비되어 각각의 재료가 갖는 느낌이 더 효과적으로 표출될 수 있게 하려 했다.

### 건축 실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건축은 창작활동으로써 예술의 한 분야지만 작업 과정으로 보면 매우 특별하다. 회화나 조각 등은 제작의 모든 과정을 작가가 직접 판단하고 시행하는데 비해 건축에 있어서는 설계자뿐 아니라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건축주, 설계된 내용을 도급 계약에 의해 실현하는 시공자 등이 함께 관계하게 되고, 관계 법률에 따라 그 행위를 승인받기 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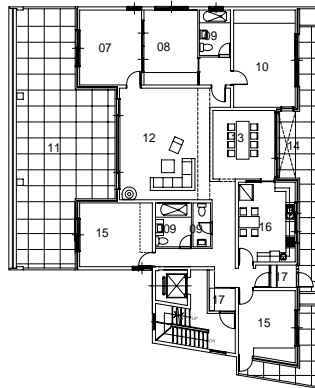
그렇지만 건축의 가치성은 창작자의 구상에서 비롯될 만큼 설계의 의미는 절대적이다. 건축주는 사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할 뿐 그 실현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않고, 또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설계자에게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 행위에 따른 결정 권한 일체가 부여되어지는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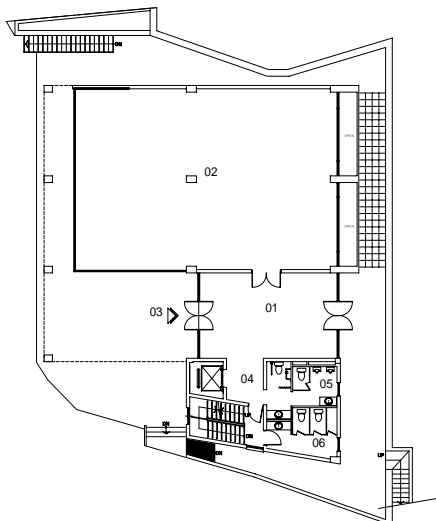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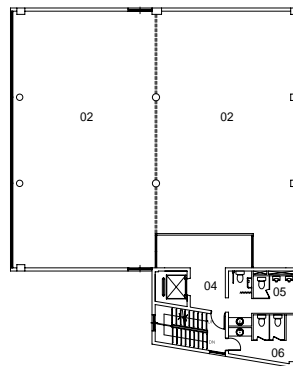
- |            |          |
|------------|----------|
| 01_ 로비     | 10_ 침실   |
| 02_ 근린생활시설 | 11_ 욕실정원 |
| 03_ 주출입구   | 12_ 거실   |
| 04_ 홀      | 13_ 식당   |
| 05_ 화장실(남) | 14_ 발코니  |
| 06_ 화장실(여) | 15_ 방    |
| 07_ 서재     | 16_ 주방   |
| 08_ 안방     | 17_ 현관   |
| 09_ 욕실     |          |



3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1, 2층 평면도

을 띤다.

그런데 건축주도 시공자도 대부분 건축의 질적 가치의 추구하고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건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의뢰자의 건축적 기대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건축주가 사업 결정에서 중시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법적 해결과 면적 확보 그리고 사례를 떠올리며 평당 공사비를 책정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는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선정해 공사를 마치려 한다.

제대로 건축적 가치를 실현하려면 그 추구가 매우 의미 있고 치열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합당한 비용을 지출하려는 마음가짐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과정에서는 건축의 가치 실현도 원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시공자는 도급계약에 의해 공사의 질을 확보할 것을 약속하고 그 수행을 통해 사업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실제 작업 과정에서 보면 값싸게 결정된 공사비 안에서 적자 없이 운영해나가기 급급할 뿐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고 시공 방법을 연구하는 등의 건축적 질을 위해 고심하는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건축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작품으로서의 구상에 담긴 의미가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 실현되어 보이기 전에 설계자의 생각은 잘 이해되기 어렵지만 도면으로 나타낸 설계자의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그 품질과 가치가 성취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건축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의 부족과 저가 수주 등 열악한 도급 환경에 놓여 있는 시공자나 전문 도급 업자들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고 실시하기를 안심하고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설계도면에 나타난 설계 의도와 달리 진행하거나 일을 잘못 해 놓아서 다시 고쳐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생각을 이해시켜 실현토록 설득해 나가는 과정의 어려움도 겪게 된다. 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매일 현장에 가서 진행을 살펴보고 진행될 시점에 지도하는 수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수에 반영되지 않은 많은 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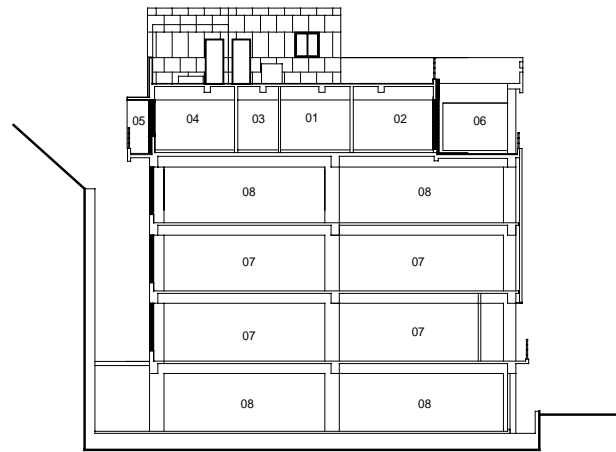
더 하게 되고 경비가 지출되지만 본인 이외의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건축주는 작업을 의뢰하고 안에 동의하여 진행된 단계에서 설계 의도와 달리 재료 등을 바꾸고자 원할 때가 있다. 의사 등의 말은 곧이곧대로 따르면서도 건축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 부터 일용 노무자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생각을 적용하려고 한다. 또한 건축주가 자기 취향을 반영하려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 건축주 주변 사람들은 조언해 주다며 엉뚱한 의견을 내어 일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로 인해 작품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될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엄청난 심적 스트레스를 받지만 고생해서 이끈 작품이 망가질까봐 조바심 하며 인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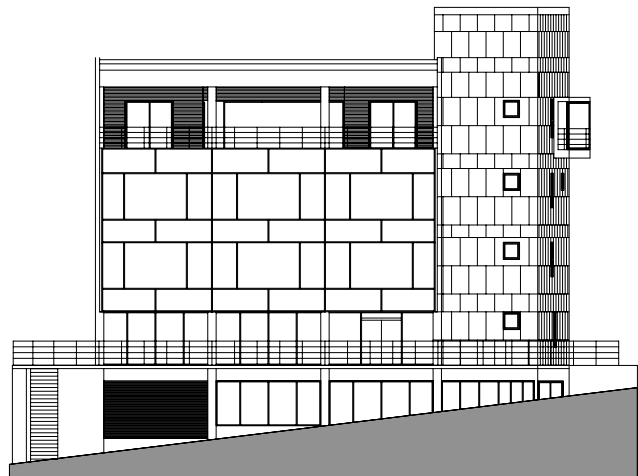
건축은 다른 예술과 달리 작업기간이 길고 많은 인력과 자재의 예산이 소요되는 엄청난 일이다. 그리고 각기 이해가 다른 사람들과 얽혀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런 상황은 건축의 길을 가며 맞닥뜨려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우리 현실에서는 건축 작업을 한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관계자들이 건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에 허탈해질 때가 있다.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어정쩡한 상태란 있을 수 없다. 도공이 제대로 빚어지지 않은 그릇을 깨뜨려 버리듯 하나의 균형이라도 깨지면 그것은 작품으로서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건축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고려하며 방안을 찾아내고 재료와 구조 공간등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도록 다듬어 내며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는 엄청난 작업이다. 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내려는 의미가 어느 과정에서 무도한 행위로 그려져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개선되려면 건축사가 진정 예술 창작인으로서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 전체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

- 01. 안방
- 02. 서재
- 03. 전실
- 04. 침실
- 05. 발코니
- 06. 욕장정원
- 07. 근린생활시설
- 08. 주차장



중단면도



정면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 종로구 신영동 72-10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대지면적	1,190.00㎡
건축면적	354.38㎡
연면적	1,778.03㎡
건폐율	29.78%
용적률	79.86%
구조	R,C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내부마감	소송널 붙임, 석고보드위 락카페인트, 벽지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화강석 잔다듬, 맑은유리, 백토벽돌